

# 탄자니아 농업 개황\*

윤성은·김윤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 1. 탄자니아의 일반적 개황

### 1.1. 위치 및 기후

탄자니아의 공식명칭은 탄자니아연합공화국(United Republic of Tanzania)으로 1964년 영국에서 독립한 탕가니카(Tanganyika)와 잔지바르(Zanzibar)가 연합하여 구성된 국가이다.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대륙 동부에 위치한 나라로 그리니치 동경 29°~41°와 적도 남위 1°~12° 사이에 있다<그림 1 참조>. 탄자니아 이웃 국가는 서쪽으로 콩고민주공화국, 부룬디, 르완다, 남쪽으로 모잠비크, 잠비아, 말라위, 북쪽으로 우간다, 케냐 등 8개국이며, 동쪽은 인도양에 면해 있어 높은 접근성을 자랑한다.

탄자니아의 국토면적은 약 948,000km<sup>2</sup>으로 본토 881,000km<sup>2</sup>, 잔지바르 2,000km<sup>2</sup>, 육수(inland water) 62,000km<sup>2</sup>, 삼림지대 3,350km<sup>2</sup>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해발 5,895m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인 킬리만자로가 탄자니아 북부에 위치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정하는 2012년 기준 탄자니아 인구는 약 47,143천 명으로 조사를 시작한 1980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탄자니아에는 약 120개의 토착언어가 존재하나 스와힐리어(Kiswahili) 및 영어가 공식 소통언어로 교육·행정·사업부문에서

\* (graceyoona@krei.re.kr 02-3299-4393).

사용된다. 한편 일상생활에서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언어는 스와힐리어이다.

탄자니아는 전형적인 열대성 기후를 가진 지역으로 고도 및 계절에 따라 온도가 10°C~35°C내에 분포한다. 고원지대의 온도는 여름과 겨울에 10°C~20°C사이에서 분포하며, 탄자니아 나머지 지역의 온도는 20°C미만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가장 더운 시기는 11월~2월로 기온이 25°C~35°C이며, 추운 시기는 5월~8월로 15°C~20°C이다. 지역에 따라 강수량 패턴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빅토리아 호수분지, 북동부 고원지대, 북동부 해안지대는 3월~5월의 첫 번째 장마철과 10월~12월의 두 번째 장마철을 갖고 있다. 3월~5월이 대표적인 우기로 긴비(long rain)가 300~600mm 정도 내리고, 10월~12월에는 짧은비(short rain)가 200~500mm 정도 온다. 나머지 지역은 11월~4월까지 500~1,000mm의 단일한 강수형태를 보인다.

2008년 기준 탄자니아 본토(main land)는 21개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는 소규모 행정구역(도시 및 농촌)으로 세분화된다. 탄자니아의 수도는 도도마(Dodoma)이며, 총 119개의 행정구역과 다르에스살람, 므완자, 므베야, 탕가, 아루샤 등 5개 도시(city)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탄자니아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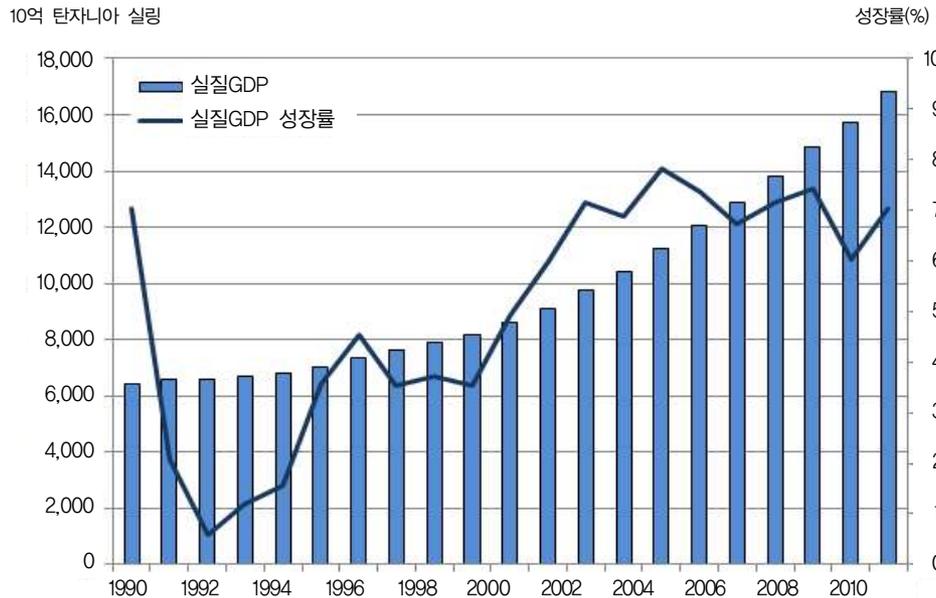


자료: 네이버 지도

## 1.2. 경제 상황<sup>1)</sup>

탄자니아의 2011년 추정 명목국내총생산(nominal GDP)은 약 238억 달러<sup>2)</sup>로 1인당 명목GDP는 516달러이다. 2011년 실질국내총생산액(real GDP, 2001년 기준)은 179,138억 탄자니아 실링으로 2010년 대비 6.4% 성장하였다.<sup>3)</sup> 2002~2011년 연평균 실질GDP 성장률 6.75%로 2000년 이후 6~7%대의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 탄자니아 연도별 실질국내총생산 변화(200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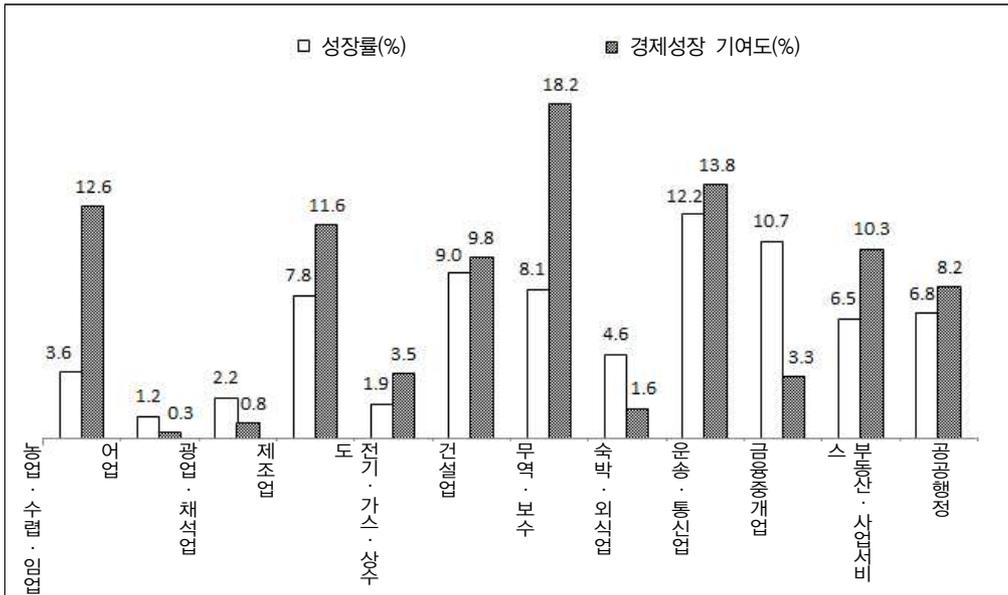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13, IMF.

이러한 경제성장에 기여한 주요 경제부문은 무역·보수업(18.2%), 운송·통신업(13.8%), 농업(12.6%), 제조업(11.8%), 부동산(10.3%), 건설업(9.8%) 등이다<그림 3 참조>. 특히 2011년에는 통신업, 금융중개업, 건설업 부문이 강한 성장세를 보였다. 휴대전화 사용인구의 증대로 통신부문이 19%대의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진행 중인 금융부문개혁과 보험서비스업의 경쟁심화로 금융중개업이 10.7%의 성장률을 기

- 1) 탄자니아은행(Bank of Tanzania)은 탄자니아 경제 현황을 본토(mainland)와 섬지역인 잔지바르(Zanzibar)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어 본 원고는 본토 수치를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한편 연도별 조사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당해 연도 6월까지임.
- 2) 본고에서 사용하는 달러는 미국달러임.
- 3) 잔지바르의 2011년 실질국내총생산액은 약 4,110억 탄자니아 실링으로 경제활동 GDP 기여도는 서비스업(50.5%), 농림어업(20.6%), 산업(13.3%) 순임.

록하였다. <표 1>은 각 경제부문이 전체 GDP에 기여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2011년 기준 서비스업이 전체 GDP의 49.5%로 가장 높은 기여도를 나타낸다. 농업부문 GDP 기여도는 22.1%이며, 이 중 작물재배가 7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림 3 2011년 경제 부문별 실질GDP 성장률 및 경제성장 기여도



자료: Bank of Tanzania, Annual Report 2011/12, Bank of Tanzania.

표 1 경제활동별 경제성장 기여도(실질GDP, 2001년 기준)

경제활동	2007	2008	2009	2010	2011
	실질성장률 (%)				
<b>농업, 임업, 수렵</b>	<b>4.0</b>	<b>4.6</b>	<b>3.2</b>	<b>4.2</b>	<b>3.6</b>
작물	4.5	5.1	3.4	4.4	3.5
축산	2.4	2.6	2.3	3.4	3.9
임업수렵	2.9	3.4	3.5	4.1	3.5
<b>어업</b>	<b>4.5</b>	<b>5.0</b>	<b>2.7</b>	<b>1.5</b>	<b>1.2</b>
<b>제조업 및 건설업</b>	<b>9.5</b>	<b>8.6</b>	<b>7.0</b>	<b>8.2</b>	<b>6.9</b>
광업·채석업	10.7	2.5	1.2	2.7	2.2
제조업	8.7	9.9	8.0	7.9	7.8
전기, 가스	10.9	5.4	8.4	10.2	1.5
상수도	6.5	6.6	5.6	6.3	4.0
건설	9.7	10.5	7.5	10.2	9.0
<b>서비스업</b>	<b>8.1</b>	<b>8.5</b>	<b>7.2</b>	<b>8.2</b>	<b>7.9</b>
무역·보수	9.8	10.0	7.5	8.2	8.1
숙박·외식	4.4	4.5	4.4	6.1	4.6
운송	6.5	6.9	6.0	7.0	6.7

표 1 경제활동별 경제성장 기여도(실질GDP, 2001년 기준) (계속)

경제활동	2007	2008	2009	2010	2011
<b>실질성장률 (%)</b>					
통신	20.1	20.5	21.9	22.1	19.0
금융중개	10.2	11.9	9.0	10.1	10.7
부동산사업서비스	7.0	7.1	6.8	7.0	6.5
공공행정	6.7	7.0	4.4	6.5	6.8
교육	5.5	6.9	7.1	7.3	7.4
보건	8.8	9.0	6.7	6.9	5.4
기타 사회개인서비스	3.2	3.1	3.2	3.5	3.0
<b>전체 GDP 중 %</b>					
<b>농업, 임업, 수렵</b>	<b>24.6</b>	<b>24.0</b>	<b>23.3</b>	<b>22.7</b>	<b>22.1</b>
작물	18.6	18.2	17.8	17.3	16.8
축산	4.0	3.8	3.7	3.6	3.5
임업수렵	2.0	2.0	1.9	1.9	1.8
<b>어업</b>	<b>1.6</b>	<b>1.5</b>	<b>1.5</b>	<b>1.4</b>	<b>1.3</b>
<b>제조업 및 건설업</b>	<b>20.9</b>	<b>21.2</b>	<b>21.4</b>	<b>21.6</b>	<b>21.7</b>
광업채석업	2.7	2.6	2.5	2.4	2.3
제조업	9.2	9.4	9.5	9.6	9.7
전기, 가스	2.1	2.0	2.1	2.1	2.0
상수도	0.4	0.4	0.4	0.4	0.4
건설	6.5	6.7	6.8	7.0	7.2
<b>서비스업</b>	<b>47.3</b>	<b>47.8</b>	<b>48.3</b>	<b>48.8</b>	<b>49.5</b>
무역보수	13.8	14.1	14.3	14.5	14.7
숙박외식	2.4	2.3	2.3	2.3	2.2
운송	5.1	5.1	5.1	5.1	5.1
통신	2.1	2.3	2.7	3.1	3.4
금융중개	1.8	1.9	1.9	2.0	2.1
부동산사업서비스	10.2	10.2	10.2	10.2	10.2
공공행정	8.0	8.0	7.8	7.8	7.8
교육	1.8	1.8	1.8	1.8	1.8
보건	1.4	1.4	1.4	1.4	1.4
기타 사회개인서비스	0.7	0.7	0.6	0.6	0.6

자료: Bank of Tanzania, *Annual Report 2011/12*, Bank of Tanzan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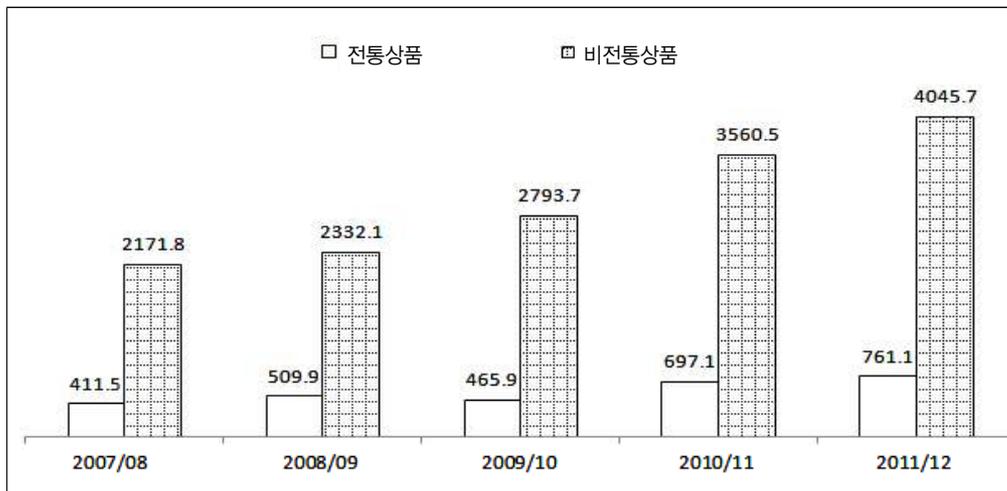
### 1.3. 교역 현황

탄자니아의 2011/12연도 전반적 국제수지는 1억9,740만 달러로 지난해 대비 95.8%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는 자본 용자, 외국인 직접투자, 차관의 유입 증대에 기인한다. 하지만 경상수지 적자는 2010/11연도의 22억0,870만 달러에 비해 2011/12연도 43억2,850만 달러로 더욱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경상수지 적자 규모의 확대는 석유 및 기계장비 수입 규모의 증대 및 정부 및 국제기구의 원조(government official transfers) 감소에 기인한다.

2011/12연도 탄자니아의 총 상품수출액은 55억9,950만 달러로 2010/11연도에 비해 14.4% 증가하였다. 비전통적인 상품, 특히 금의 시장가격이 유로부채 위기로 높게 형성되어 탄자니아의 수출 증가를 견인하였다. 가공품 수출액은 2010/11연도의 10억6,060만 달러에서 2011/12연도 9억2,200만 달러로 감소하였다<그림 4 및 그림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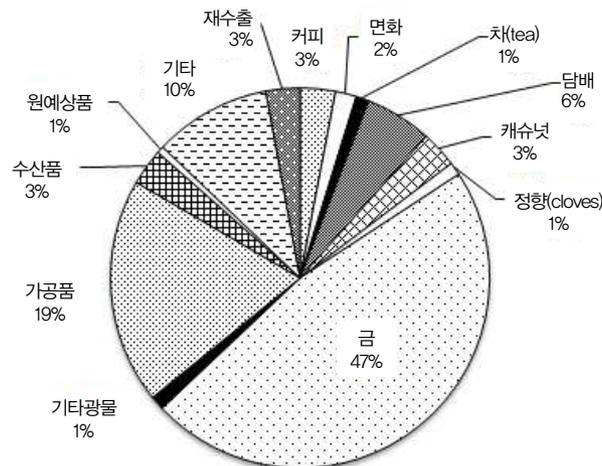
그림 4 탄자니아 수출 구조

단위: 백만 달러



자료: Bank of Tanzania, Annual Report 2011/12, Bank of Tanzan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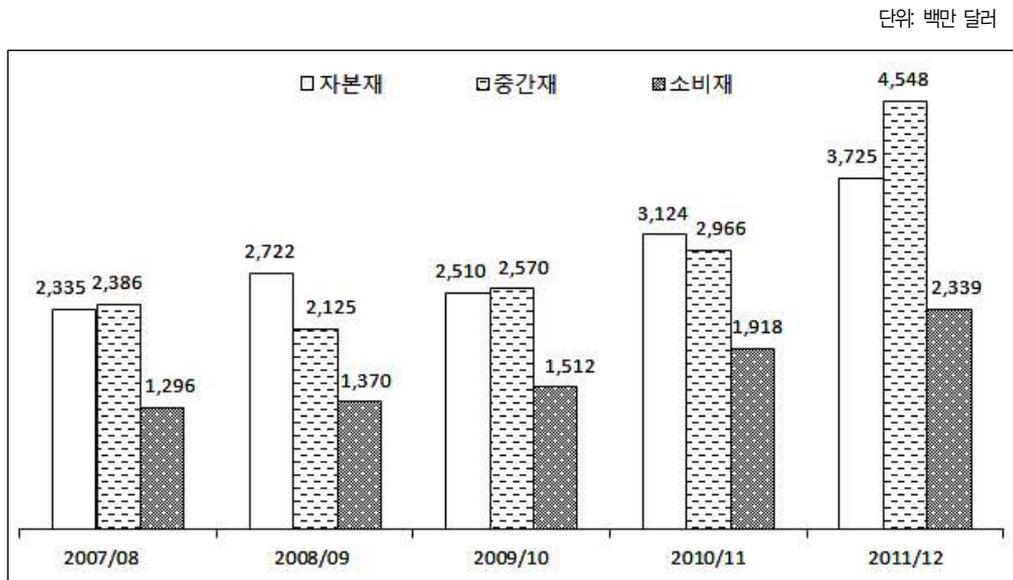
그림 5 2011/12년 탄자니아 수출 주요 상품(수출액 비중, %)



자료: Annual Report 2011/12, Bank of Tanzania.

탄자니아의 2011/12연도 상품 수입액은 1,06억1,510만 달러로 2010/11연도의 80억1,160만 달러에 비해 약 32.5% 증가하였다<그림 6 참조>. 이러한 증가는 화력발전의 국내 수요 증가와 결부된 국제시장에서의 석유가격 상승에 기인한다. 더불어 가스 및 석유 탐사용 기계장비의 수입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그림 6 탄자니아 주요 부문별 수입 현황



자료: Bank of Tanzania, Annual Report 2011/12, Bank of Tanzania.

2011/12연도 탄자니아의 주요 무역 수입국은 스위스(12.3%), 인도(10.9%), 아랍에미리트(9.6%), 중국(9.4%), 남아프리카공화국(9.3%) 등이다<표 2 참조>. 상위 10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탄자니아 전체 수입액의 69.2%를 차지한다. 한편 탄자니아의 주요 수출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20.2%), 스위스(17.6%), 중국(11.9%), 일본(6.2%), 독일(5.8%) 등이다.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은 탄자니아와 수출과 수입이 활발한 주요 국가이다. 탄자니아가 스위스에서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석유와 석유관련 제품인 반면 대(對) 스위스 수출품목은 금, 담배, 구리광석, 동정광(copper concentrates) 등이다. 다른 주요 무역 상대국은 남아프리카로 주로 금, 귀금속, 커피, 담배, 차 등을 수출한다. 대 중국 수출품은 귀금속, 구리광석, 망간, 유지종자이고, 수입품은 화학제품, 고무, 직물, 신발, 전동기 등이다.

표 2 2011/12연도 탄자니아 주요 교역국

상위 10개 주요 수입국 (%)		상위 10개 주요 수출국 (%)	
스위스	12.3	남아프리카공화국	20.2
인도	10.9	스위스	17.6
아랍에미리트	9.6	중국	11.9
중국	9.4	일본	6.2
남아프리카공화국	9.3	독일	5.8
바레인	4.8	케냐	5.6
일본	4.0	인도	5.2
케냐	3.5	콩고민주공화국	2.8
영국	3.0	네덜란드	2.1
미국	2.4	말라위	1.9
기타	30.8	기타	20.8
합 계	100	합 계	100

자료: Bank of Tanzania, Annual Report 2011/12, Bank of Tanzania.

## 2. 탄자니아 농업 현황4)

### 2.1. 농업인 현황

2007년 탄자니아 정부가 시행한 2007/08연도 국가농업표본조사에 따르면 2007/08연도 농업인은 31,013,026명(본토 30,264,358명, 잔지바르 748,668명)이다. 이 중 남성이 15,487,217명, 여성이 15,525,810명이다. 농업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8년 약 1,500만 명에서 2007/08년 약 3,100만 명으로 100% 이상 증가하였다<표 3 참조>.

표 3 2007/08연도 성별 및 연령별 농업종사자 수

연령별	성별						성별 비중
	남성		여성		전체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4세 이하	2,162,414	14	2,127,332	14	4,289,746	14	1.02
5~14세	4,792,811	31	4,547,310	29	9,340,121	30	1.05
15~64세	7,868,086	51	8,246,542	53	16,114,627	52	0.95
65세 이상	663,906	4	604,626	4	1,268,532	4	1.10
전 체	15,487,217	100	15,525,810	100	31,013,026	100	1.00

자료: MAFSC, National Sample Census of Agriculture Small Holder, MAFSC(2012).

4) 탄자니아 농업 현황의 주요 내용은 OECD가 2013년 3월 발행한 탄자니아 투자정책검토(OECD Investment Policy Review of Tanzania) 보고서 내용 중 농업 부문을 요약 및 정리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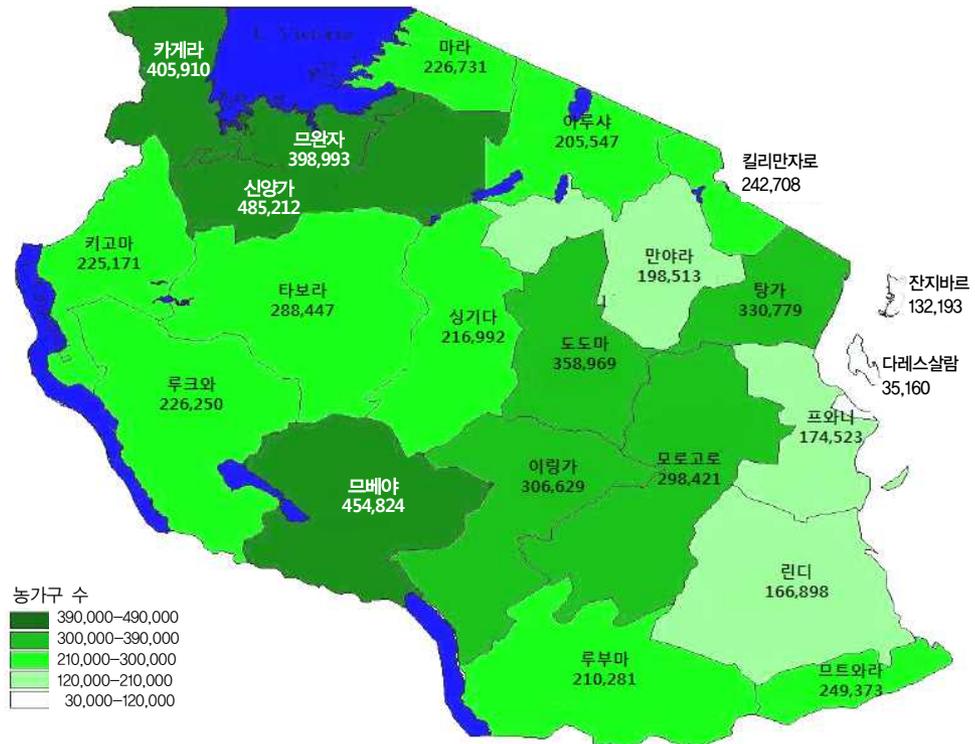
탄자니아의 농업 노동력은 매우 젊어 2008년 농업인구의 44%가 15세 미만이며, 15~64세층이 전체의 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65세 이상은 4%에 불과하다.

2008년 탄자니아의 총 농가구수는 5,838,522호(본토 5,706,329호, 잔지바르 132,193호)로 2003년 4,901,837호에 비해 약 19% 증가하였다. 이 중 남성가구주가 4,651,702호로 전체 농가구의 79.7%이며, 여성가구주는 1,186,802호로 20.3%이다. 2008년 농가당 평균 가구원수는 5.3명으로 2003년 5.2명에서 비해 약간 증가하였다.

탄자니아 농업에서 가장 지배적인 농업활동은 작물생산으로 전체 농가구의 60.1%가 작물을 생산하며, 38.8%의 농가구가 작물과 가축을 함께 생산한다. 한편, 축산 전업 농가는 1.1%에 불과하다. 농가당 평균 경작규모는 2ha이다.

탄자니아에서 농가구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신양가(485,212호), 므베야(454,824호), 카게라(405,910호), 므완자(398,993호) 등으로 지역별 농업인 분포는 <그림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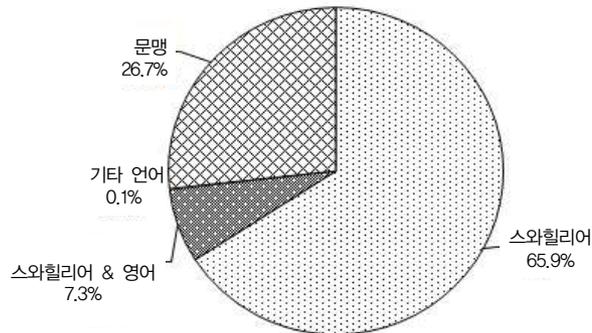
그림 7 2008년 탄자니아 지역별 농가구 현황



자료: MAFSC. National Sample Census of Agriculture Small Holder, MAFSC(2012).

2008년 5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문맹률을 조사한 결과 약 26.7%가 글을 읽거나 쓸 수 없는 가운데 스와힐리어 식자율 비중이 약 66%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스와힐리어와 영어가 모두 가능한 농업인은 7.3%에 그쳤다. 교육 수준에서 살펴보면 5세 이상 중 약 35%가 학교에 재학 중이며, 41%가 특정 수준의 학업을 마쳤고, 나머지 24%는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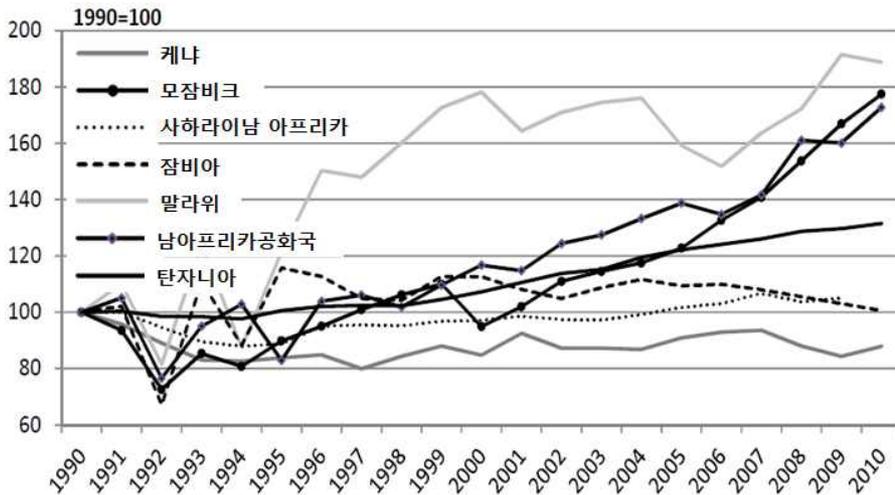
그림 8 2008년 탄자니아 농업인(5세 이상) 문맹률 현황



자료: National Sample Census of Agriculture Small Holder, MAFSC(2012).

탄자니아 농업인의 노동 생산성은 지난 20년간 완만히 증가해왔다. 1990~1998년 동안에는 정체된 모습을 보이다가 1999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탄자니아

그림 9 탄자니아 농업인 노동생산성 변화



자료: OECD(2013).

농업인의 노동생산성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평균 노동생산성보다 높은 수준이며, 케냐와 잠비아의 노동생산성보다도 높다. 하지만 말라위, 모잠비크, 남아프리카공화국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그림 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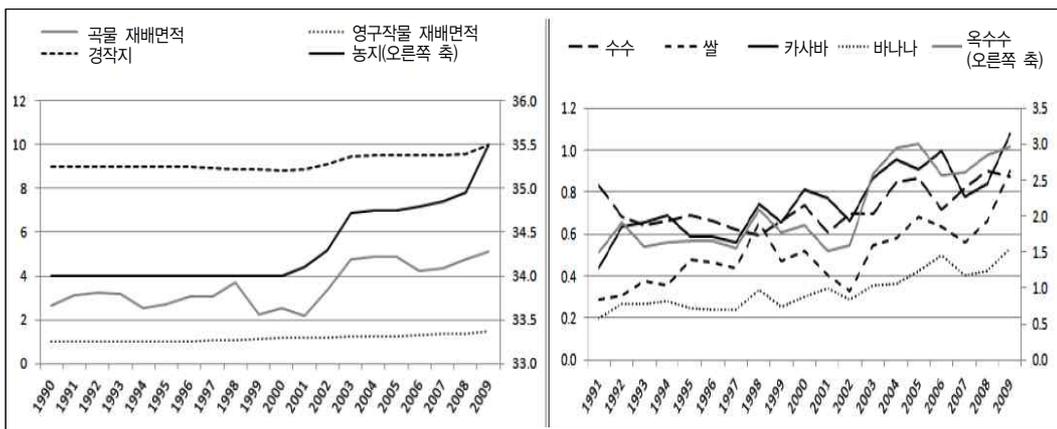
## 2.2. 농지 연황

탄자니아투자센터(Tanzania Investment Center, TIC) 자료에 따르면 탄자니아는 전체 9,450만 ha의 토지 중에서 농업활동과 축산에 적합한 토지는 각각 4,400만 ha, 2,600만 ha이다. 경작지 면적은 조사 자료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1,020만~1,930만 ha 사이로 추정되며, 가축 사육면적은 2,600만~3,500만 ha 사이로 추정된다.

농지를 경작가능하고 영구작물 또는 초지를 재배하고 있는 토지로 정의한 FAO 자료에 따르면 탄자니아의 농지는 1990~2009년 사이 3,400만 ha에서 3,550만 ha로 증가하였다. 동기간 영구작물 재배 면적 규모는 거의 변하지 않은 반면, 곡물(cereal) 재배 면적은 250만 ha에서 510만 ha로 증가하였다. 소농 및 목축민이 전체 농지의 85%를 점하고 있으며, 1인당 농지는 0.12ha로 추정된다(TAFSIP, 2011).

주요 식량 작물별 수확 면적은 지난 20년간 증가해 왔다. 옥수수, 카사바, 바나나, 쌀, 밀의 생산량은 각각 2배, 2.5배, 2.6배, 3.2배, 3.9배 증가하였다. 2007~2008년 사이 옥수수 재배면적이 전체 식량작물 재배면적의 약 37%를 차지하는 가운데 두류 15%, 수수 11%, 카사바 10%, 쌀 9% 순이다.

그림 10 1990~2009년 재배면적 및 식량작물별 수확면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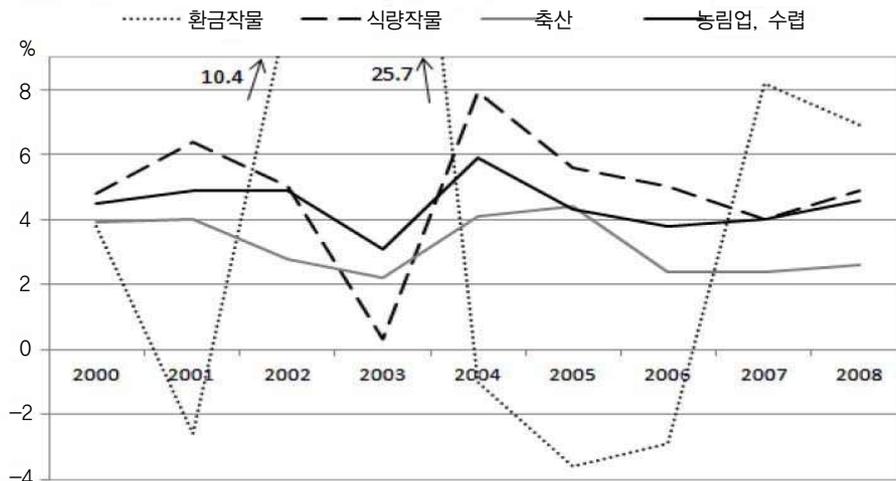
자료: OECD(2013).

### 2.3. 농업 경제 연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탄자니아에서 농업은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산업 중의 하나이다. 2010년 농업부문은 탄자니아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약 22%, 노동 고용의 75%, 수출액의 30%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농업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 비중에서 1위인 광업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농업생산량은 대부분의 국내 식량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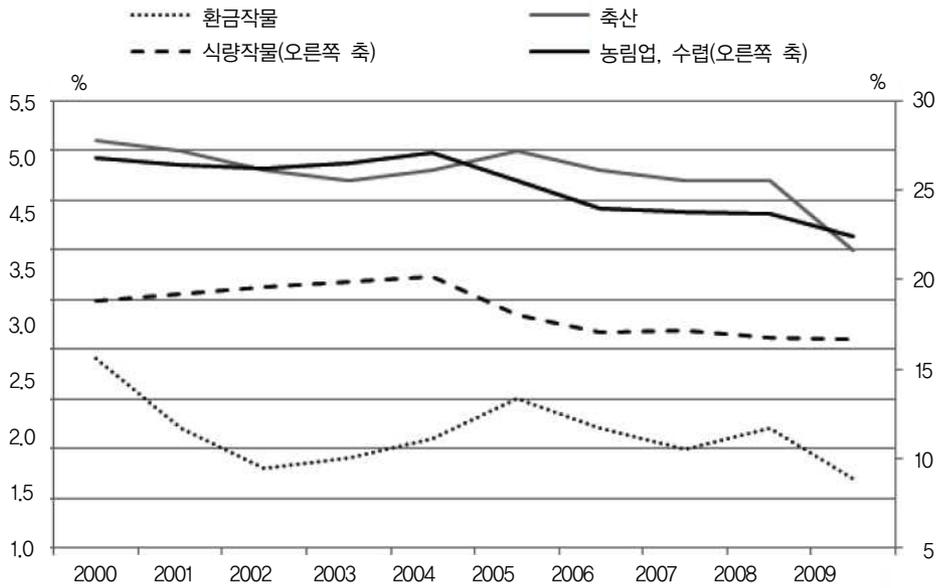
하지만 지난 10년간 탄자니아 농업부문 국내총생산(GDP)은 전체 GDP 성장 속도에 비해 매우 느리게 증가하고 있다. 국가 전체 GDP는 1990년 이후로 광업과 관광업의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유입으로 세 배로 증가하였다. 2009년 세계경제둔화 이전에 GDP성장률은 8년 연속 6% 이상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농업부문(산림, 수렵 포함)의 GDP 성장률은 2000~2008년 사이 평균 4.4%에 그쳤다. 세부 농업 부문 성장률은 작물에 따라 다양한데 환금작물(cash crops)은 2000~2008년 -4%~26%대의 다양한 성장률은 보인 반면, 식량작물(food crops)과 축산은 동기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였다<그림 11 참조>. 농업부문의 저조한 성장세에 비해 광업과 같은 다른 경제부문의 급속한 성장으로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농업부문의 비중은 1990대 이후 감소하는 추세로 1998년 27%에서 2009년 22%로 감소하였다<그림 12 참조>.

그림 11 2000~2008년 농업 세부 부문별 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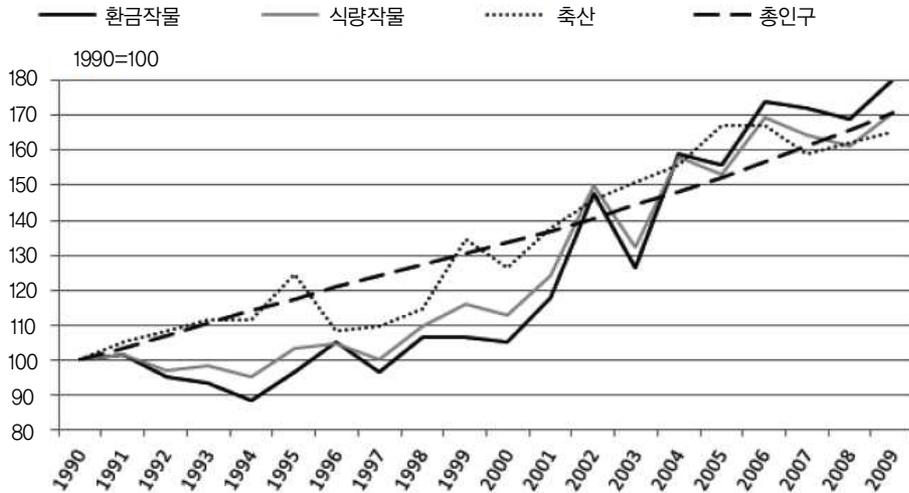
자료: OECD(2013).

그림 12 2000~2009년 전체 GDP 중 농업 세부 부문별 비중



자료: OECD(2013).

그림 13 1990~2009년 농업 생산량 지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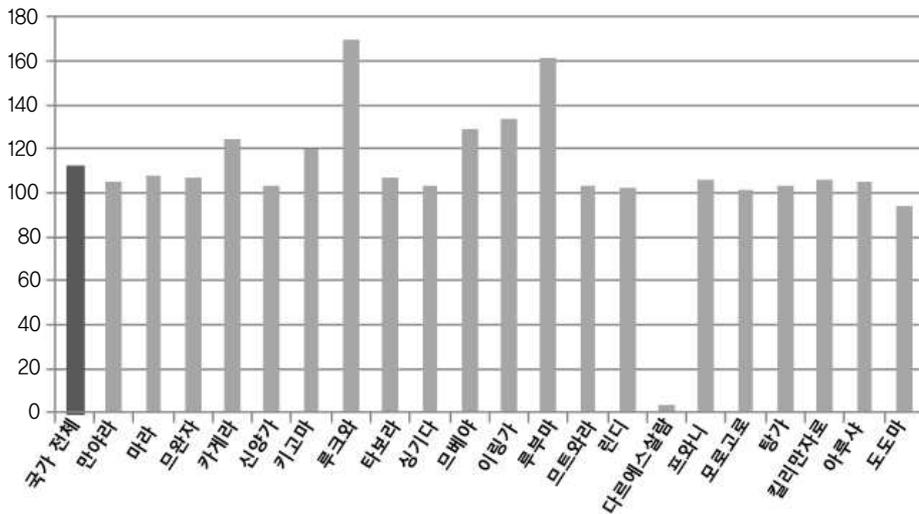


자료: OECD(2013).

상대적으로 낮은 농업부문의 GDP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농업생산량은 인구 증가와 함께 증가해 왔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1990~2010년 사이 옥수수, 쌀, 사탕수수, 육류 생산의 증가로 농업생산량은 약 2배 이상 증가하였다<그림 13 참조>. 1990~2009년 사이 환금작물 생산량과 식량작물 생산량은 각각 1.8배, 1.7배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화훼 및 과수생산이 상당히 증가하여 2007~2008년 사이 약 20%의 증가세를 보였다.

탄자니아의 지역별 식량자급률(Food Self-Sufficiency Ratio, FSSR) 상황은 <그림 14>와 같다. 탄자니아 식량 자급상황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국내 식량 생산량은 국내 수요를 전반적으로 충족시켜 왔다. 2000~2011년 사이 식량자급률은 2003~2004년 88%, 2010~2011년 112% 등 시기에 따라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 14 2010~2011년 탄자니아 지역별 식량자급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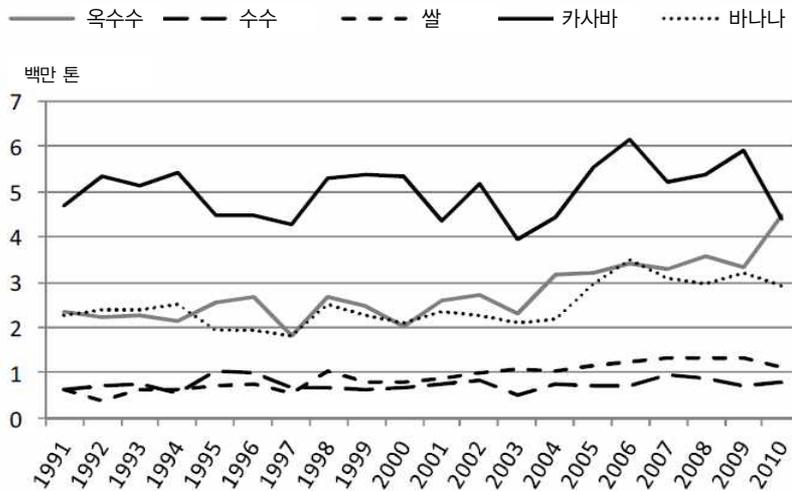
자료: OECD(2013).

## 2.4. 농업 생산 연망

탄자니아는 다양한 작물을 생산하고 있다. 작물은 크게 식량작물과 환금작물로 분류된다. 식량작물은 옥수수, 두류, 수수, 기장, 쌀, 밀, 고구마, 카사바 등이며, 주요 환금작물로는 커피, 차, 면화, 캐슈넛, 담배 등이 있다. 1998~2007년 사이 카사바가 전체 식량작물 생산량의 평균 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가운데 옥수수 18%, 감자 17%, 바나나 16%, 쌀 6%, 두류 5% 등이다<그림 1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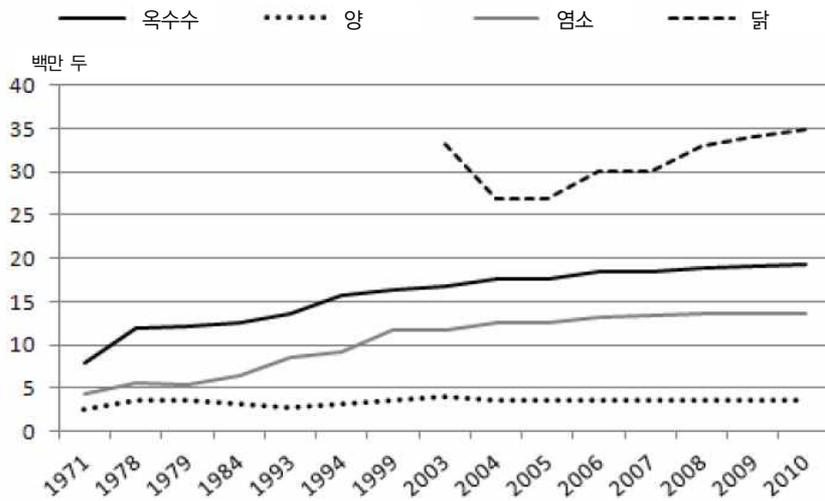
환금작물 중에서는 면화와 사탕수수가 각각 25%로 가장 많이 생산되며, 차 19%, 캐슈넛 14%, 담배 6%, 사이잘 4% 등이다<그림 16 참조>. 탄자니아는 동아프리카의 최대 면화 생산국으로 약 50만 명의 농업인이 485,000ha에 달하는 면적을 경작하고

그림 15 1991~2010년 식량작물 생산량 추이



자료: OECD(2013).

그림 16 1971~2009년 가축 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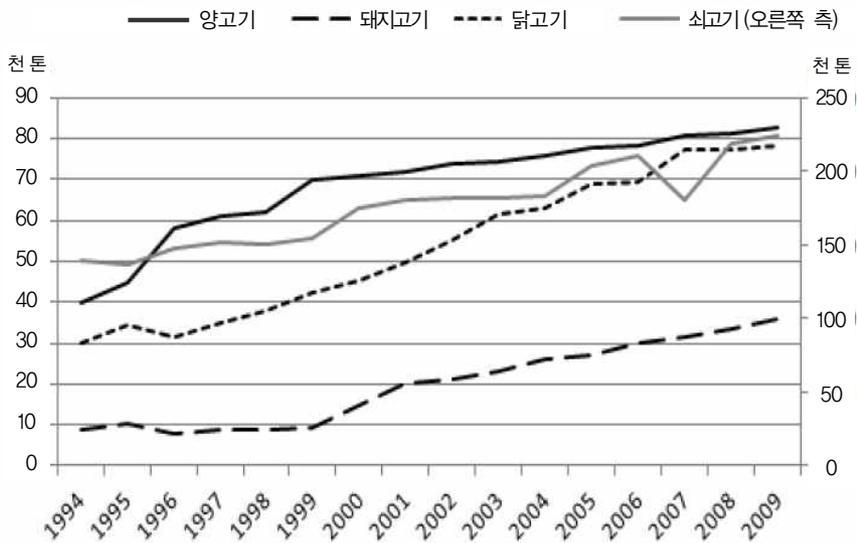
자료: OECD(2013).

있다. 하지만 낮은 면화가격으로 인해 근래 면화생산량이 2009/10년 267,004 톤에서 2010/11년 163,517톤으로 상당히 감소하였다. 2012/13년 계약재배 도입 및 완만한 기후 조건으로 면화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년간 차 재배면적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차 재배 생산성의 급속한 향상으로 차 생산량이 31% 증가하였다. 동기간 차 수출물량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수출금액은 45% 증가하였다. 캐슈넛 생산량은 캐슈넛 독점 재배를 폐지하면서 1997~2007년 사이 약간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탄자니아는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중 축산부문 선두국가로 수단, 에티오피아 다음으로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축산부문은 농업 국내총생산의 약 1/4가량을 차지한다. 육류 생산량과 가축 사육두수는 지난 10년간 증가해왔다<그림 17 및 18 참조>. 1994년 이후 쇠고기와 양고기 생산량은 거의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닭고기와 돼지고기는 각각 3배, 4배 증가하였다. 2010년 공식통계에 따르면 소가 1,920만 마리로 전체 육류 생산의 약 75%를 차지하는 가운데 염소 1,370만 마리, 양 360만 마리, 돼지 180만 마리, 닭 5,800만 마리 등이다.

가축생산은 이중경제(dual economy)에 의존하고 있다. 소규모의 축산농가가 전체 가축 생산의 98%를 담당하고 대규모낙농가 및 영리기업이 나머지 2%를 생산한다. 1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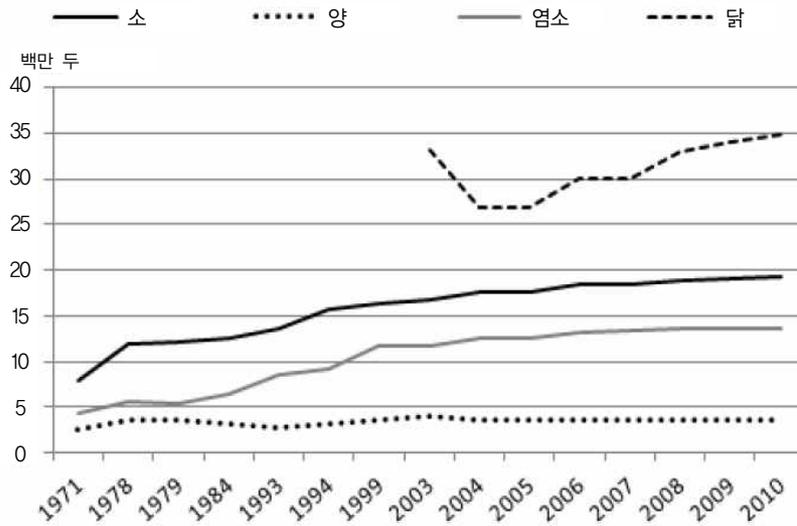
그림 17 1994~2009년 육류 생산 추이



자료: OECD(2013).

년 세계은행 용자로 설립된 국가소유 국립목장(National Ranching Company, NARCO)은 대표적인 축산 기업이다. NARCO는 623,000ha의 면적에 달하는 9개의 목장에서 소, 염소, 양 등을 사육하여 연간 12,250마리에 달하는 소를 판매한다. 또한 7개의 무두질 공장에서 4,000만 제곱피트에 달하는 가죽을 처리하여 연간 400만개에 달하는 가죽 제품을 판매한다.

그림 18 1971~2009년 가축 두수 추이



자료: OECD(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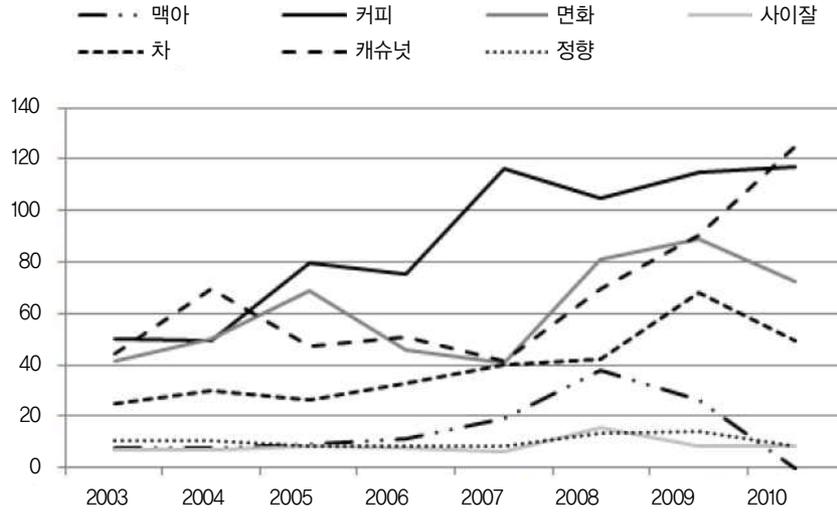
## 2.5. 농산물 교역 연왕

탄자니아의 농산물 수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향후 그 증가폭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환금작물 중 캐슈넛, 커피, 면화의 수출금액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그림 19 참조>. 2008~2010년 사이 전통 수출 작물 수출금액은 전체 상품 수출액 중 평균 16.5%를 차지하였고, 2008/09년 대비 2009/10년 수출금액은 세계적인 담배가격 호황에 힘입어 3,475만 달러에서 4,335만 달러로 25% 증가하였다. 하지만 식량작물 수출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밀과 옥수수의 수출량 감소폭이 가장 크다<그림 20 참조>.

최근 환금작물의 수출금액은 증가한 반면 수출물량은 감소하거나 1990년 수준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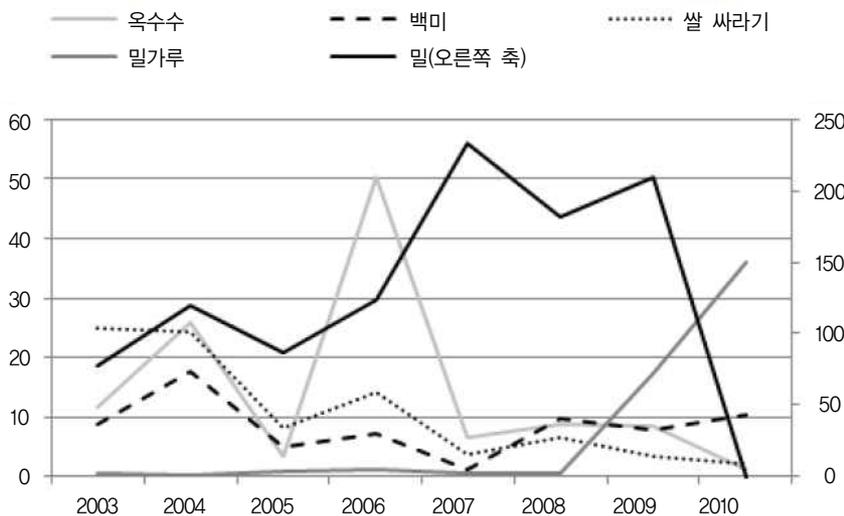
약간 증가하였다. 흥미롭게도 작물위원회의 수출 농산품(캐슈넛, 커피, 면화, 제중국, 사이잘<sup>4)</sup> 설탕, 차, 담배)의 수출물량은 1990~2008년 사이 22% 소폭 성장하였으나, 작

그림 19 2003~2010년 주요 현금작물별 수출금액 변화



자료: OECD(2013).

그림 20 2003~2010년 주요 식량작물별 수출금액 변화



자료: OECD(2013).

물위원회 비대상 품목 수출물량은 218% 성장하여 대조를 이뤘다. 이는 작물위원회의 규제뿐만 아니라 수입국의 비관세 장벽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 2.6. 농업정책 및 농업부문 지원 현황

탄자니아의 2006~2017년 주요 농업정책은 농업부문개발프로그램(Agricultural Sector Development Programme, ASDP), 킬리모 크완자(Kilimo Kwanza, KK), 아프리카농업개발 종합프로그램(Comprehensive Africa Agriculture Development Programme, CAADP) 및 탄자니아농업식량안보투자계획(Tanzania Agriculture & Food Security Investment Plan, TAFSIP)이다<표 4 참조>.

표 4 탄자니아 2006~2017년 주요 농업정책

정책	입안기관	시행기간	진행기관	비용	재정	주요 관련성	초점분야
농업부문개발 프로그램 (ASDP)	농무부 (MAFC)	1단계: 2006~2013년 2단계: 계획중	농무부 (MAFC)	19억 달러	탄자니아정부, 기부금	5개 농업관련 부처	소농가 농업생산, 관개
킬리모 크완자 (KK)	탄자니아 국립사업 위원회(TNBC)	2009년부터 ~	PMO-PALG (총리실)	-	탄자니아정부, 기부자, 민간부문	상업농업인, 탄자니아남부 농업성장통로 (SAGCOT)	기업농
CAADP /TAFSIP	CAADP /MAFC	2012~2017년	농무부 (MAFC)	53억 달러	탄자니아정부, 기부자, 민간부문, 박애자본주의자	ASDP	소농가 농업생산, 식량안보

자료: Future Agricultures(2013).

농업부문개발프로그램(Agricultural Sector Development Programme, ASDP)은 21세기 탄자니아의 대표적인 농업정책이다. ASDP는 탄자니아정부 특히 농업식량안보협력부(Ministry of Agriculture, Food Security and Cooperatives, MAFC) 및 기타 천연자원기반 부처와 해외 원조기관(donor agency)의 '전통적인' 공동정책이다. ASDP는 공공재 제공, 농촌 기반시설 강화, 시장 및 무역 개발,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토지와 노동생산성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SDP는 초기에 탄자니아정부와 본 프로그램의 재정을 일부 지원하는 원조기관(세계은행 등)의 의견 불일치로 시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원조기

5) 사이잘(sisal hemp): 외떡잎식물 백합목 용실란과의 여러해살이풀. 잎에서 섬유를 뽑아 로프 등의 직물을 짜는 데 사용한다. 섬유는 노란빛을 띤 흰색으로 가늘고 부드러우며 탄력과 광택이 있다. 이와 비슷한 종인 헤네켄(henequen:A. fourcroydes)은 잎이 흰색이고 가장자리에 가시가 있다. 잎에서 섬유를 얻는데 사이잘삼보다 질이 떨어지며 로프를 만드는 데 씀.

관은 ASDP를 탄자니아 중앙정부와 관련 준국가기관의 과도한 자원 개발의 결과로 공공재 제공을 확대하는 상당히 국가중심적인 개발전략이라고 인식하였다.

2005년 선거 직후 탄자니아 키크웨테(Kikwete) 대통령은 야심찬 논벼 생산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후 수도작 정책은 ASDP의 대표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나중에 많은 원조기관이 본 프로그램에서 철수하였지만 세계은행은 소규모 관개에 초점을 두고 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두 번째 대표적인 정책은 킬리모 크완자(Kilimo Kwanza, KK)<sup>6)</sup>로 본 정책은 2008년 시작되었다. KK는 탄자니아 농무부(MAFC) 또는 원조기관이 아닌 탄자니아국립사업위원회(Tanzania National Business Council, TNBC)가 주도하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정치적 지원을 받고 있다. KK는 기존의 일반적인 정부-원조기관 협력 체제의 농업정책 관행을 깨뜨린 것으로 ASDP를 포함한 당국 정책의 공공부문 개발과 다른 정책 방향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당국정책은 소농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KK는 대농 및 농산업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KK가 민간부문 주도의 정책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형성 구조는 탄자니아정부의 비중이 높다는 점(약 40%)과 다수의 협력기관들이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 ASDP와 매우 유사하다.

탄자니아농업식량안보투자계획(Tanzania Agriculture & Food Security Investment Plan, TAFSIP)은 KK와 대조적으로 민간투자보다 대부분 정부투자에 의한 정책으로 보다 발전된 ASDP라 볼 수 있다. 현재 TAFSIP는 ASDP하에서 행해졌던 농업정책을 대체해 가

표 5 TAFSIP 프로그램별 추정 비용

단위: 10억 탄자니아실링

프로그램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전체	비중(%)
생산 및 판매	958	1,148	1,254	1,361	1,500	6,221	71
관개	187	214	236	265	298	1,200	14
정책/기관 개혁 및 지원	104	170	131	145	131	681	8
농촌기반시설, 시장접근성, 무역	62	76	79	72	63	357	4
식량 및 영양안보	23	49	49	44	46	211	2
재해관리 및 기후변화 완화	9	11	19	16	12	66	<1
민간부문발전	4	3	3	3	3	16	<1
전체	1,351	1,672	1,770	1,906	2,053	8,752	100
백만 달러(동가)	819	1,013	1,073	1,155	1,245	5,304	

자료: Future Agricultures(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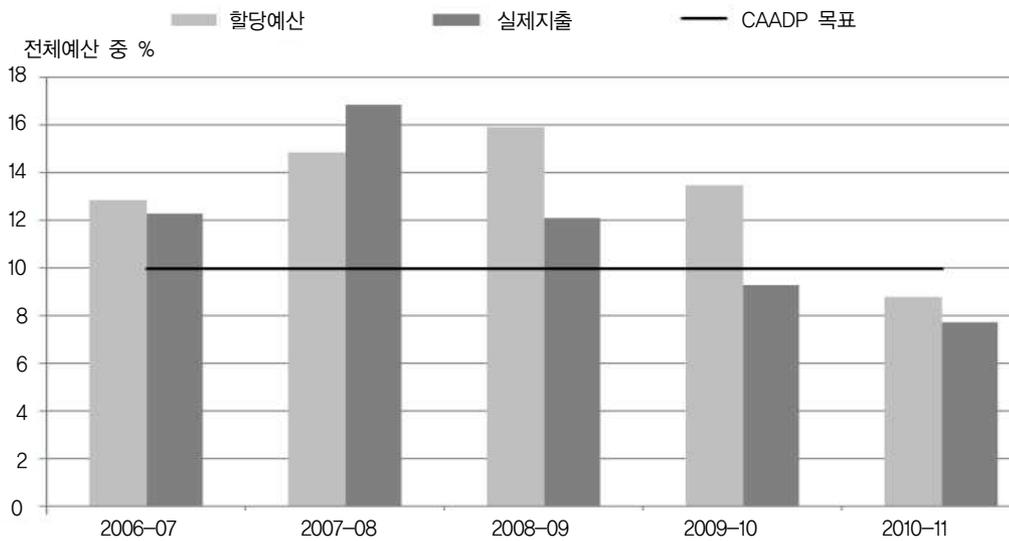
6) Kilimo Kwanza는 농업우선정책(Agriculture First)을 의미함.

고 있다. TAFSIP의 우선순위전략과 목표별 소요비용은 <표 5>와 같다. TAFSIP는 공공 및 민간부문 투자에 있어 향후 5년간 약 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TAFSIP는 농산물 생산과 판매 촉진에 가장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71%).

아프리카농업개발 종합프로그램(Comprehensive Africa Agriculture Development Programme, CAADP)은 2003년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AU)의 국가 정상과 신아프리카개발협력(New Partnership for African Development, NEPAD)이 함께 만든 농업정책이다. CAADP는 경제성장을 위해 아프리카 농업발전에 활기를 불어넣고 그 결과로 빈곤을 감소를 목표로 하는 아프리카 주도의, 아프리카 주체의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CAADP는 ① 토지 및 수자원 관리, ② 시장 접근성, ③ 식량공급 및 빈곤, ④ 농업연구개발 등 4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다. CAADP는 다수의 펀드와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시행되고 있다. 2012년 6월까지 40개의 아프리카 국가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30개의 국가가 CAADP 협정에 서명하였고 23개 국가가 투자계획을 완료하였다. CAADP는 농업부문의 연 6% 성장과 국가예산의 농업부문 10% 할당을 통해 2015년 빈곤율을 절반으로 낮추고자 하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 MDG) 달성을 목표로 한다. 탄자니아 정부는 CAADP 협정에 2010년 7월 서명하였으며, 그 결과물로 2011년 10월 TAFSIP 정책을 수립하였다.

승인된 농업부문 예산 비중은 2006년 대비 2010년 53% 증가하여 총 6억2,930만 달러에 달했다. 농업예산은 2009년 회계연도에 총 8억5,070만 달러로 최고치를 달성했다.

그림 21 2006~2011년 농업부문 예산 비중 변화



자료: OECD(2013).

이에 비해 농업부문 실제지출은 보다 저조한 속도로 증가하여 2006년~2010년 사이 약 30% 증가하였고(4억8,500만 달러), 농업부문으로 가장 많이 지출된 해는 2007/08연도로 7억3,430만 달러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전체 예산 중 농업부문 예산 비중은 2006/07연도의 13%에서 2010/11연도 약 9%로 하락하였다<그림 21 참조>.

전체 예산 중 농업부문 예산 비중은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15%, 17%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이래 감소하는 추세로 현재 농업예산 비중은 전체 예산의 10%를 배정 하자는 CAADP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다른 부문과 연관되지 않고 농업 부문에만 사용되는 농업 특정 예산 비중은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7.8%, 5.2%로 농업 부문 예산 비중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탄자니아 농업부문은 탄자니아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 및 원조기관들이 투자를 받고 있다. 탄자니아 농업부문의 기업투자 비중은 변동이 심하나 최근 들어 2010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환금작물, 식량작물, 축산 부문 투자 비중이 높고 탄자니아정부(55%)외 주요 투자지역은 유럽연합(25%), 아시아(9%), 중앙아시아(5%), 아프리카(4%), 아메리카(2%) 순이다(Cooksey, 2013). 탄자니아 정부와 함께 여러 국제기구가 농업부문에 원조 및 투자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은 <표 6>과 같다.

표 6 농업부문 주요 투자 프로젝트(탄자니아 본토)

활 동	원조기관	시행기간	비용 (백만 달러)
농업부문발전프로그램 (ASDP)	탄자니아(URT), 세계은행(WB)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아일랜드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2006-2013	-
식량안보프로젝트가속화 (AFSP)	WB	2008-2010	160
미래식량 (Feed the Future)	미국국제개발처(USAID)	2011-2015	300
탄자니아빵바구니개혁프로젝트	URT 아프리카농생혁명연합(AGRA)	2010-2015	173
탄자니아남부농업성장통로 (SAGCOT)	URT, 민간부문, WB, 기타	2011-2031	3,400
판매망, 부가가치 및 농업금융 지원프로그램(MIVARF)	URT, IFAD, AfDB, AGRA	2011-2031	150
남부산악지대식량시스템프로그램 (SHFSP)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2011-2018	5.3
농촌 중소규모기업지원프로그램 (MUV)	IFAD	2011-2012	25
국가개발전략 (NARDS)	JICA	2007-2013	-
농촌삶의질 발전프로그램 (RLDP)	스위스개발협력기금(SDC)	2009-2018	21
새천년개발목표달성 국가별실행계획 2010-2015	유엔개발계획(UNDP)	2005-2011	-

자료: Cooksey(2013), Future Agriculture.

---

탄자니아 농업생산자, 가공자, 서비스제공자에 따르면 농업부문 투자 확대를 저해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열악한 시장접근성이다. 또한 분권화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역 정부간 연결고리가 약하여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도 농업투자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요인으로 낮은 농업신용접근성, 수자원접근성, 사업고충해결 및 금융 정보 접근성, 노동력 부족 등이 있다.

탄자니아는 풍부한 농업발전 가능성을 가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기계화 및 유통시스템으로 인해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탄자니아 농업노동력에서 약 10%만을 트랙터 등 기계가 대신하고 나머지는 소, 당나귀를 활용한 쟁기 이용과 인간노동력(호미)에 의존하고 있어 농업의 기계화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향후 탄자니아 스스로의 농업발전정책과 더불어 여러 국제기구 및 투자국의 원조·투자의 확대로 탄자니아 농업부문이 투자 및 발전의 선순환을 이루어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Bank of Tanzania, 2012, *Annual Report*, 2011/12. Bank of Tanzania.
- Cooksey, Brian. 2013. *The Comprehensive Africa Agriculture Development Programme(CAADP) and agricultural policies in Tanzania: Going with or against the grain?*. Future Agriculture.
- MAFC. 2011. *2010/11 Annual Report*.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Security and Cooperatives.
- \_\_\_\_\_. 2012. *National Sample Census of Agriculture Small Holder Agriculture Volume II: Crop Sector-National Report*,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Security and Cooperatives.
- \_\_\_\_\_. 2013. *Investment Potential and Opportunities in Agriculture*.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Security and Cooperatives.
- OECD. 2013. *OECD Investment Policy Reviews: Tanzania*. OECD.
- TAFSIP. 2011. *Tanzania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Investment Plan 2011-12 to 2020-21*. Working Paper No.2. Background to the Agricultural Sector in Tanzania.

## 참고사이트

- 국제통화기금 ([www.imf.org](http://www.imf.org))
- 미래농업컨소시엄 ([www.futre-agricultures.org](http://www.futre-agricultures.org))
- 탄자니아중앙은행 ([www.bot-tz.org](http://www.bot-tz.org))
- 탄자니아농업식량안보협력부 ([www.agriculture.go.tz](http://www.agriculture.go.tz))